

포스텍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충형(chung@postech.ac.kr)이라고 합니다. 수능 국어 시험에 칸트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하기에 풀어 보았습니다.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③번이 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봅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가 새로운 생각을 하면 거의 대부분 틀리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주시면 배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메일 주신 모든 분께 답을 드리지 못할 수 있는 점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작성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신 이해황 선생님, 그리고 오르비에서 제 말씀에 친절하게 답을 주신 “랑샘국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18일)

[14-17 지문 중 발췌]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갑: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1. 문제 제기 핵심

(핵심 1)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나와 재현된 의식 둘 다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을 경우, 인격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믿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이 옳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 점은 사전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지문과 보기의 내용만을 사용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핵심 2) 다음의 문제 풀이는 잘못된 풀이입니다.

이 문제는 ‘ $a=b$ 이고 a 가 C 이면, b 도 C 이다’를 통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칸트 이전 견해에 따르면 ‘생각하는 나’=영혼이다. 따라서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면 영혼은 지속한다. 칸트 이전 견해에 따르면, 영혼이 지속하면 동일성이 보장되므로,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면 동일성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③이 답이다.

(핵심 1)이 옳으면 17번 문항은 오류입니다. (핵심 2)가 옳고 17번의 답이 ③임을 보여주는 다른 좋은 풀이가 없으면, 17번 문항은 오류입니다. 그런데 17번의 답이 ③임을 보여주는 다른 좋은 풀이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핵심 1)과 (핵심 2) 둘 중 하나라도 옳으면 17번 문항은 오류입니다.

그러므로 17번 문항에 오류 없음을 보이려면 (핵심 1)과 (핵심 2)를 모두 반박하시거나 (핵심 1)을 반박하시고 17번의 답이 ③임을 보여주는 다른 좋은 풀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핵심 1)에 대한 상세 설명 → 2,

(핵심 2)에 대한 상세 설명 → 3,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가 의식의 프로그램 재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께서는 → 4.1,

칸트 이전 견해가 갑이 사용하는 전제를 수용하는지에 대해 지문은 아무런 설명이 없으므로, 칸트 이전 견해를 의식의 프로그램 재현 상황에 적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께서는 → 4.2,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풀면 안되고, 수험생이 통상적으로 푸는 방식으로 풀면 ③번 선지가 쉽게 나오는데 뭘 복잡하게 따지나는 분께서는 → 4.3

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 (핵심 1) 상세 설명

<보기>에서 갑은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경우를, 의식을 스캔 당한 사람이 스캔 전에 가졌던 의식과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 사이에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는 경우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의 주장에 대한 설명/이유로 제시되는 마지막 문장,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 포함되어야 하거든”은 앞의 주장과는 무관한 주장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보기>로부터, 갑은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경우, 의식을 스캔 당한 사람이 가졌던 스캔 전 의식과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 사이에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기>에는 의식을 스캔 당한 사람이 스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거나 하는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로부터, 갑은 스캔 당한 사람이 스캔 과정이나 그 이후에 계속 살아있게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해, 스캔 당한 사람이 가졌던 의식과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 사이에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갑은 이 경우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신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갑의 주장은 ‘생각하

는 나’가 지속하는 모든 상황에서 동일성이 깨진다는 주장이 아니라,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인격의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이런 상황이 하나라도 있으면 갑의 주장이 맞게 됩니다.

③번 선지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줄여서 ‘칸트 이전 견해’)가 과연 이러한 갑의 생각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문 중 ‘칸트 이전 견해’를 설명하는 부분은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을 경우, 인격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를 함축합니다.

이제 17번의 ③번 선택지가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갑이 말하고 있는 의식을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상황에 대해 ‘칸트 이전 견해’가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를 고려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상황에서 과연 스캔 당한 사람이 스캔 전에 갖고 있던 의식과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 사이에 영혼이 지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은 스캔 당한 사람이 스캔 과정 후에도 계속 살아있게 되는 경우에도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과연 영혼이 지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갑의 주장은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인격의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적어도 하나라도 있으면 성립합니다.

그런데 스캔 당한 사람이 스캔 이후에도 살아 있고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과 공존하는 경우,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영혼은 지속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캔 당한 사람은 스캔 이후에도 살아 있으므로 계속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이 영혼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상황은 스캔 당한 사람의 의식과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 사이에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영혼은 지속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칸트 이전 견해’에 따르면 이 상황은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고, 따라서 칸트 이전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스캔 당한 사람이 스캔 전 가지고 있던 영혼이 스캔을 통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으로 옮겨 간다고 누군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결론이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스캔 당한 사람은 스캔을 통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왜냐면 영혼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으로 옮겨 갔으므로), 그렇다면 스캔 당한 사람은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지만 영혼은 지속하지 않게 되어 ‘칸트 이전 견해’에 의하면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경우를 스캔 후에 스캔 당한 사람의 의식과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이 하나의 영혼을 공유한다고, 즉,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해야 동일성이 보장되는데,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의식을 갖는 상황은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면,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상황은 ‘생각하는 나’는 지속 하지만 영혼이 지속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혼이 지속하지 않을 경우, 인격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칸트 이전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전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지문과 보기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 (핵심 2) 상세 설명

EBS에서 제시한 정답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¹⁾

정답해설 : 1문단에 제시된,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인식 주체)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생각하는 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곧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기에,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볼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정답 ③

이는 해설로 부족합니다. 지문은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의 지속이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갑은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갑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해설에는 왜 칸트 이전 “견해에 의하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생각하는 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곧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문제를 푸셨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개체 a와 b 그리고 속성 C에 대해, a=b이고 a가 C이면, b도 C이다’를 통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지문에서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라고 했으므로, 칸트 이전 견해에 따르면 ‘생각하는 나’=영혼이다. 따라서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면 영혼은 지속한다. 칸트 이전 견해에 따르면, 영혼이 지속하면 동일성이 보장되므로,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면 동일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칸트 이전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③이 답이다.

얼핏 보기에도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풀이는 실제로는 잘못된 풀이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서, ‘생각하는 나’와 영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합니다. 지문에 등장하는 이 둘의 유일한 연결 고리는 “‘생각하

1) <https://www.ebsi.co.kr/ebs/xip/xipc/previousPaperList.ebs?targetCd=D300>

는 나'인 영혼'이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생각하는 나”=영혼‘이라고 해석하고 따라서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면 영혼도 지속한다고 추론하셨을 텐데, 이는 옳지 않은 해석과 추론입니다.

“생각하는 나”=영혼’이라는 표현은 지문과 보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이 표현은 (등호를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분이 많긴 하나) 잘못된 표현입니다. 등호 '='를 사용할 때는 '1=2'처럼 등호 양쪽에 개체(존재자)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나 한정기술구를 사용하거나 'a=b'처럼 개체가 할당되는 변수나 개체상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나’와 ‘영혼’은 개체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기에 “생각하는 나”=영혼’은 등호를 적합하게 사용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대신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라는 표현을 <모든 x에 대해서, x가 ‘생각하는 나’이면 x는 영혼이고, x가 영혼이면, x는 ‘생각하는 나’이다>를 함축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x가 ‘생각하는 나’이면 x는 영혼이고, x가 영혼이면 x는 ‘생각하는 나’이다>라고 해서,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면 반드시 영혼이 지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매순간 새로운 영혼이 창조되고 소멸되면서도 생각이 이어지면 즉 소멸되는 영혼이 가졌던 생각을 새로 창조되는 영혼이 이어서 생각하면, '생각하는 나'는 지속해도 영혼은 지속하지 않습니다. 올해 수능 특강 99쪽 지문에 관련 견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스스로 동일한 인격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닌, 복수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선행하는 주관에서 사유된 내용이 후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하에 사유된다면, 복수의 주관으로 구성된 사유 주체가 이를 동일한 인격을 마주치는 것으로 의식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칸트의 독창적 견해는 아니고 당시 꽤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논의 중인 연속창조론(매순간 세계가 소멸하고 새롭고 창조된다는 견해)이라는 견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경 지식은 차치하고 논리적으로만 따졌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x가 ‘생각하는 나’이면 x는 영혼이고, x가 영혼이면 x는 ‘생각하는 나’이다>라고 해서,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면 반드시 영혼이 지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칸트 이전 견해에 따르면,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면 동일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③이 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지?”라고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실 텐데, 이는 지속성이라는 속성의 특이성에 기인합니다.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 <영혼이 지속한다>라는 주장은 <'생각하는 나'가 생각한다>, <손흥민은 축구선수다>와는 문법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주장입니다. <'생각하는 나'가 생각한다>는 어떤 주어진 순간에 ‘생각하는 나’가 생각함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라고, <손흥민은 축구선수다>는 어떤 주어진 순간에 손흥민이 축구선수임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는 어떤 주어진 순간에 ‘생각하는 나’가 지속함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는 주어진 시간에 개체가 무슨 속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개의 다른 시점 t1, t2에 대해, t1의 ‘생각하는 나’와 t2의 ‘생각하는 나’가 하나의 동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7번 문항은 <a=b이고 a가 C라는 속성을 갖는다면, b도 C라는 속성을 갖는다>라는 논증이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수능출제자분들께서 이렇게도 어려운 문제를 내셨습니다 (ㅠㅠ). 건방진 말씀을 드리자면, 등호의 무분별한 사용 때문에, 그리고 지속성의 이러한 특이성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런 논리적 오류를 범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건방진 말을 할 때마다 나중에 틀린 것으로 드러나서 겁

이 납니다.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기억이 더 잘 나서 배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분들은 ‘생각하는 나’의 지속은 반드시 ‘영혼의 지속’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영혼론의 입장이므로 위의 주장은 영혼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문에 나오지 않은 사전 배경 믿음을 사용한 주장입니다. 지문의 어떤 곳에서도 칸트 이전 견해에 따르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은 반드시 ‘영혼의 지속’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표현이나 이를 함축하는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4. 가능한 반론에 대한 답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여러 반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기될 수 있는 반론에 대한 답을 여기서 드립니다.

4.1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가 의식의 프로그램 재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전혀 따질 필요 없다?

이 반론은 <핵심 1>에 대한 반론으로, 칸트 이전의 학자들은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 상황에 대해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전혀 따질 필요가 없다는 반론입니다. 하지만, ③번 선자는 칸트 이전의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어떠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는 당시에만 존재했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인 영혼론은 현재에도 여러 종교에서 강력하게 지지받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이라는 표현은 (1) ‘칸트 이전에 이 견해를 피력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견해에 따르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2) ‘칸트 이전까지는 유력했던 하지만 지금은 유력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견해에 따르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반론은 (1)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의 해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오히려 이 해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2)의 해석을 할 경우 갑이 말하고 있는 의식 복제 상황에 대해 이 견해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를 추론해 보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칸트 이전의 학자들은 <보기>에서 갑이 다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했을 리가 없으므로 <보기>에서 다루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문과 보기의 연계해 문제를 푸는 평가의 방식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 (1) ‘칸트 이전에 이 견해를 피력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당시 견해에 따르면’이라는 해석을 따르고, 갑이 말하는 의식 복제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해석이며 평가 방식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자연스럽고 평가목적에 맞는 (2)의 해석을 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③번 선자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2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가 갑이 사용하는 전제를 수용하는지에 대해 지문은 아무런 설명이 없으므로,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를 의식의 프로그램 재현 상황에 적용할 수가 없다?

이 반론도 <핵심 1>에 대한 반론입니다. 갑은 의식의 프로그램 재현 상황이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칸트 이전 견해가 이런 전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문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으므로, 칸트 이전 견해를 의식의 프로그램 재현 상황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반론입니다.

이 반론에 대해서는 제가 수능 국어 문제를 풀 때, 암묵적 전제를 어떻게 수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몰라서 수긍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보기>의 갑의 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갑: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위에서 갑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는 것, 이를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갑은 을에게 이를 상상해 보라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갑의 말을 이해하는 방법은 갑의 주장을 ‘...이면 ...이다’라는 조건언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갑: 만약 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경우, ... 그리고 이것이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는 경우라면 ...

이 경우, 갑의 주장을 다음과 됩니다.

<만약 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가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는 경우라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번 선지는 다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만약 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가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는 경우라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이 경우, 칸트 이전 견해를 의식의 프로그램 상황에 적용해 문제를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위의 반론이 맞다면 17번 문항은 풀이가 단순해집니다. 17번의 선지는 다음과 같습니

다.

- ①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옳겠군.
- ②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④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 ⑤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지문에는 롱게네스가 프로그램으로 의식의 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론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풀면, ①이 답이 될 수 없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롱게네스가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⑤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3 ③번 선지가 쉽게 나오는데 뭘 복잡하게 따지나?

어떤 분들은 "수능시험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풀면 되겠나? '생각하는 나'=영혼, 그러므로 '생각하는 나' 지속 => 영혼 지속이라 생각하고 ③번 선지를 선택하면 맞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논증인데, 이게 잘못된 논증임을 수험생이 알기는 어려우므로 대략적 사고만 해도 맞게 해주자"라는 주장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점은 설사 ③번 선지가 지문으로부터 따라 나온다고 해서, 바로 17번 답이 오류없이 ③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주장으로부터 A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해서, A의 부정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장에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로부터 A와 A의 부정이 둘 다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항에 모순이 있는 경우라면 ③번과 ③번의 부정이 동시에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③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③번의 부정이 도출되지 않아야 오류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나'인 영혼'을 '생각하는 나=영혼이라고 해석하고 위의 논증을 사용해 ③을 이끌어 내고, 동시에 "칸트 이전 견해" 의식의 프로그램 재현 상황에 적용해 ③의 부정을 이끌어 내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항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칸트 이전 견해에 의하면"이라는 표현을 부자연스럽게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오류인 추론을 사용할 때만 ③번 선지가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류 없이 ③번이 답이라고 하는 주장은, 깊은 사고 없이 실제로는 논리적 오류를 저지르면서도 단편적으로 일부 문구의 유사성만 가지고 선지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피상적 유사성을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내는 인공지능이 있는 시대에, 수학능력시험의 문구의 피상적 유사성과 실제로는 오류인 피상적 사고 추론을 통해 문제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어긋나 보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